

## 붉은배새매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Accipiter Soloensis  
英名 Chinese Sparrow Hawk

한여름 산림이 울창한 녹음 속을 걷다보면 높은 음의 소리를 내는 붉은배새매를 접할 수 있다.

새매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물결무늬로 강렬한 새매 특유의 무늬가 없고, 체구가 통통하며 눈이 커서인지 겉모양은 대단히 유순해 보인다.

또 암수는 색깔이 대조적인데 숫컷은 전체가 회색을 띠나, 암컷은 칙칙한 황토색을 띠면서 엷은 나무색갈의 가로줄 무늬가 있는데 얼핏 보아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

야외 식별이 대단히 까다로운 맹금류들의 종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이 종에 있어서도 초심자는 분류가 어렵다.

특히, 어린새에 있어서는 암수가 모두 새매의 줄무늬가 선명하여 성조와 아성조 그리고 유조에 있어서는 혼동이 오기도 한다.

생활 근거지는 산림내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지만 농경지나 촌락으로 진출하여 채식을 하는데 개울가의 개구리를 주식으로 하고 들쥐나 작은 산새를 채기도 한다. 붉은배새매는 한국에서 번식을 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이다.

4월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월동을 한후 북상하여 10월 초순이 되면 서서히 남하하는데 가까운 일본은 이상스럽게도 살지를 않는다.

다만 이동기에 일본 열도의 남부지방인 유구열도, 남여군도 등지에서 나그네 새로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어린 시절 새매 새끼를 길러 보았다는 어른들의 추억담에 등장하는 새매는 대다수가 붉은배새매 새끼인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점종의 새매이다.

번식은 5월 중순부터 산림속의 나무가지위에 마른나무가지로 접시형의 둥지를 지어 늦어도 6월 초순에 둥근타원형의 알을 한번에 평균 4개를 낳는 것이 보통이다.

포란기간은 약 20일 정도 걸리는데 암컷이 지키는 일, 알 품는 일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대다수 생활의 활동부담은 숫컷이 도맡아 한다.

그간 관찰된 바로는 한둥지에서 부화되는 개체 수는 3마리가 보통이고 더러는 2마리도 흔히 본다.

양징스러울만치 보송보송한 솜털의 어린 새는 약 20여일 자라면 둥지를 떠나 먹이를 공급받다가 어느날 독립을 하게 된다.

종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